

두 들어 올리면서, 불쌍한 폴까지도 해안으로부터 아주 멀리 되던져버렸다네.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가슴에는 멍이 들어, 반은 익사한 것이나 다름없었지. 이 젊은 친구는 감각이 되살아나자마자,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워, 새로 열의를 불사르며 배로 돌아갔지만, 그러는 사이 바다가 그만 끔찍한 타격을 가해 배를 반쯤 갈라버렸다네. 그러자 모든 선원들은 배를 구제해내리라는 희망을 버리고는 우르르 몰려들더니 바다로 뛰어들어, 활대며, 판자며, 닭장이며, 식탁이며, 술통이며 가릴 것 없이 올라탔지. 바로 그때 영원한 연민을 받아 마땅한 대상이 보였네. 한 젊은 아가씨가 생제당 호의 선미 복도에 나타나더니,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사력을 다하던 사람을 향해 팔을 뻗고 있었어. 비르지니였네. 그녀는 폴의 용맹한 모습을 보고 자신의 정인임을 알아보았지. 그토록 사랑스러운 사람이 너무나 참혹한 위험에 처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고통과 절망에 휩싸였네. 그런데도 비르지니는 고귀하고 당당한 태도로, 우리에게 영원한 작별 인사를 건네듯 손짓을 해 보였어. 선원들은 모두 바다에 몸을 던지고 없었네. 갑판에는 딱 한 사람만이 남아 있었는데, 그는 헤라클레스처럼 완전히 벌거벗고 몸에는 힘줄이 잔뜩 솟아 있는 사람이었지. 그는 공손하게 비르지니에게 다가갔네. 우리는 그가 무릎을 꿇더니, 비르지니의 옷을 벗기려고 부러 애쓰는 것까지 보았어. 하지만 비르지니는 위엄을 갖추고 그를 밀어내고는, 그에게서 시